

농업인 생활시간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의 개선방안

김 외 숙(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이 기 영(서울대학교 교수)
이 연 숙(고려대학교 교수) · 조 희 금(대구대학교 교수)
이 승 미(우석대학교 교수) · 홍 두 승(서울대학교 교수)
조 흥 식(서울대학교 교수) · 김 유 경(서울대학교 강사)
한 영 선(고려대학교 강사)

I. 서 론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시간사용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활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활시간에 관한 조사는 1924년 구소련에 의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각국마다 특유의 목적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1960년대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비교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장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생활시간조사를 진행하면서 생활시간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어 오다가 1981년 이후 한국방송공사(KBS)에 의하여, 1999년 이후에는 통계청에 의하여 5년 주기로 국민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전국규모의 조사에 포함된 농업인의 사례는 매우 적으며, 농업관련 행동이 행동분류코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생활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도 1965년 이후 6차에 걸쳐 농업인의 생활시간조사를 수행해 왔으나, 표준화된 조사도구가 부재하였고 농업관련 행동이 매우 큰 범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전국표본의 대규모 조사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수집·축적된 자료의 장기 시계열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농업인의 생활시간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5년 가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농촌진흥청의 농업특정연구사업의 하나로 농업인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즉 농업인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생활시간 배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농업인의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모든 사회조사에서 조사방법이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생활시간조사의 경

1) 본 연구는 2005년도 농촌진흥청의 농업특정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우 조사방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일지조사의 경우 생활행동의 분류체계는 조사의 핵심적인 요소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실시한 농업인 생활시간조사의 조사방법을 밝히고 이를 통계청 및 선진국들의 생활시간 조사방법과 비교함으로써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방법의 특징을 파악하고 추후 조사에서 개선할 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인 생활시간 조사방법의 범위에는 조사기간, 표본설계, 조사대상, 조사항목, 자료수집, 자료집계 및 생활행동 분류를 포함시켰다.

이상의 조사방법 항목별로 2005년에 실시된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방법을 정리하고 이를 2004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 규모의 국민생활시간 조사방법 및 선진국의 생활시간 조사방법과 비교하며 이를 기초로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방법의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농촌 생활시간 조사방법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조사기간, 표본설계, 조사대상, 조사항목, 자료수집, 자료집계, 생활행동 분류로 항목을 나누어 먼저 2005년의 농촌 생활시간 조사방법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2004년 실시된 통계청(2005)의 국민생활시간 조사방법 및 외국의 생활시간 조사방법과 비교하였다. 외국의 자료로는 미국(2004년), 호주(1997년), 일본(2001년)에서 최근 실시된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및 유럽의 생활시간조사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harmonized European time use)(Eurostat, 2000)을 사용하였다. 유럽 각국의 실제 조사는 국가에 따라 조사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를 기초로 조사가 시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III. 생활시간 조사방법

1. 조사기간

계절별로 농업노동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생활시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농번기인 2005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조사는 농한기인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시간일지조사는 평일과 휴일 하루씩 2일간 조사하였다.

통계청의 2004년 전국민 생활시간조사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이루어졌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조사연도의 일정기간을 1회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호주의 경우 각 계절별로 연중 4회의 기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중조사를 실시하였거나 권장하고 있다. 시간일지를 조사하는 기간은 연중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1일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2일이 일반적이다.

농업인 시간일지조사가 농번기 및 농한기의 2차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통계청의 조사보다는 계절적 차이를 반영한 특징이 있지만 연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대표성에 한계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표본설계

전국적인 표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당 50가구씩 총 4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하였다.

지역별로 주작목에 따라 미맥 20가구, 과수 10가구, 축산 10가구, 시설원에 10가구의 비율로 대상 가구를 표집하였다. 농가 작목 구분에 있어서 주작목의 기준은 각 농가에서 경작하는 작목 중 그 작목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자가 필요량 이상으로 판매를 염두에 두고 쌀이나 보리농사를 짓는 경우는 미맥가구로 인정하였다. 미맥의 경우 한 마을(“리” 단위)에서 10가구씩 2개의 리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다른 작목의 경우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조사에 선정된 지역 및 조사지역당 주작물 배분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지역

	경기 여주군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경북 안동시	경남 거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나주시	합 계
미 맥	20	20	20	20	20	20	20	20	160
과 수	10	10	10	10	10	10	10	10	80
시설 원예	10	10	10	10	10	10	10	10	80
축 산	10	10	10	10	10	10	10	10	80
합 계	50	50	50	50	50	50	50	50	400

조사마을 및 조사가구의 선정은 조사원에게 위임하였으며, 표집과정에서 농업인 중 비중이 낮은 젊은 가구주 가구를 반드시 포함하고, 3세대 이상 가구도 가능하면 포함하도록 하였다. 가구 선정 시 경제수준, 연령, 성별 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유의하였다.

2004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에서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4,998개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에서 추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용 조사구 1,629개(약 33,000가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사용하였다. 추출되는 표본이 표본틀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요일별 분석이 가능하고, 사무소별 업무량을 고려해 추출하였으며, 최종 표본 조사구는 850개 조사구였다. 표본추출 원칙으로는 층화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으며, 표본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는 2004년 1월분 경제활동인구조사용 가구명부화일을 사용하였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각국마다 사용가능한 표본들을 활용하여 표집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유사한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조사대상을 모집단으로 한 점은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와 동일하지만, 종족이나 자녀유무 및 연령과 같은 변수를 고려한 층화표집 단계를 거침으로써 적은 표본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추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농촌 거주자로 확대하여 농촌을 포괄하는 표본들을 활용하면서 조사구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층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의 대표성과 함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조사대상 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다. 현역군인,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취업·취학으로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요양소·기도원 등에 수용된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표 배부일로부터 회수일까지 4일간 계속 부재중인 가구원, 심신장애(보고 듣는 것이 불가능한 자, 치매환자) 등의 사유로 시간일지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은 조사대상 가구 내의 제외 가구원으로 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연령은 10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일본, 유럽은 10세 이상을, 미국, 호주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호주에서는 가구원 전체의 시간일지를 조사했으며, 유럽도 가구원 전체를 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구당 1인만의 시간사용을 조사하였다. 10세 이상의 가구원 전체를 조사한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의 경우 아동의 시간사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가구구성원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 조사 항목

시간일지를 통하여 농번기 및 농한기 각각에 대하여 1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2일간의 생활시간을 조사하였고, 가구원 중 성인 1인을 선정하여 2차에 걸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시간일지 조사

10분 간격의 시간일지에 2일간의 시간사용을 주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시간일지 간격은 5분, 10분, 15분으로 다양한데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 10분 간격의 시간일지를 사용하였으며, 미국 및 호주는 5분, 일본은 15분 간격으로 조사하였고,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0분을 추천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2차 행동도 조사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주행동과 함께 2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질문지 조사

1차 질문지 조사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복지, 노동 및 여가, 가족관계, 경제상황, 주거환경, 생활만족도에 관한 57개 항목들을 조사하였고, 2차 질문지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기초로 건강, 복지, 보육·자녀교육, 안전, 여가 및 노동, 시간제약, 가족원의 지위, 가족관계, 경제상황, 주거환경에 관한 39개 항목을 더욱 자세하게 조사하였다.

시간일지를 통한 생활시간 조사 이외에 조사에 포함시키는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별도의 질문지 조사 없이 일지표에 가구관련 사항 4항목 및 개인관련 사항 15개 항목을 포함시켜 조사하였으며, '2004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들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조사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은 농어가 구분, 주택의 종류,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비하여 비교대상국들은 다양한 질문항목을 포함한 질문지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농업인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 조사 외에 개인 및 가구원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2차에 걸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5. 자료수집

생활시간 조사방법은 크게 종이질문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컴퓨터를 이용하는 전화면접조사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인 생활시간조사는 종이에 인쇄된 시간일지표 및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원은 각 여성농업인센터의 소장에게 의뢰하여 선정하였으며, 거창, 나주, 안동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센터 소장도 면접조사원으로 포함되었다. 지역별로 2~4명의 조사원을 선정하였고, 조사원 전원(40명)을 대상으로 시간일지 조사의 요령 등 조사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간일지표는 10분 단위로 설계된 것으로 주행동만 기록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과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하였고, 시간일지조사는 질문지 조사를 위한 방문시 시간일지를 조사대상가구에 배포하여 조사대상 가구원 모두가 자신이 한 실제행동을 2일 동안 기입하는 응답자 직접기입식 조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에 인쇄된 질문지 및 시간일지를 사용하지만 최근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ing: 컴퓨터 보조 전화면접조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원이 조사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가구에 조사표를 전한 후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시간일지를 기입하거나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의 응답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은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비용 역시 과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CATI)을

활용한 전화조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자료집계

1차 시간일지 및 질문지 조사에서 1,100부의 시간일지 및 400부의 질문지가, 2차 시간일지조사에서 1,000부의 시간일지표가, 2차 질문지 조사에서 333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시간일지표는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농번기 1048부, 농한기 999부를 자료처리하였고, 질문지는 회수된 것을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간일지표 중 1, 2차 조사의 동일대상 자료는 941사례로서 패널자료로 분석할 때에는 이 사례들만 이용하였다.

시간일지표에서 생활행동분류는 사후코딩 방식을 사용하였고, 행동은 전체적으로 9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140개 소분류 항목으로 구분하되 농업노동 행동에 한정하여 보다 세분하였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표본 가구(조사구당 15가구) 및 가구원은 12,750가구, 32,191명이고, 최종 응답가구 및 응답가구원은 12,651가구, 31,634명이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63,268일이다.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표는 미국, 호주, 일본이 각각 13,973부, 7,281부, 186,424부이다.

생활시간조사에서의 시간일지 자료집계 방식은 사후 코딩이 일반적이다. 비교대상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에서 사후 코딩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코딩의 정확성이 자료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미국의 경우 코딩요원에 대한 훈련 및 평가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통제되고 있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수집된 자료의 활용과 관련해 볼 때 통계청 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이용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자료를 연계하여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료이용에 제한을 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표본을 공유하는 CPS 자료와 연계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누구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질문지조사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시간사용과 관련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통계담당기관에서 시행한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00부 이상의 다수인데 비해 농업인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1,000부 정도의 사례밖에 분석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7. 생활행동 분류

농업인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체계를 따름으로써 농업인의 조사결과를 전국민의 조사결과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면서 농업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행동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세 체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 9, 50, 13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인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통계청의 행동분류 소분류에서 3항목을 더하여 140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추가된 행동은 <표 2>의 비교칸에 표시된 새참, 컴퓨터 사용, 농업관련 이동이다.

<표 2> 행동분류

대분류	중분류	비고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의료적) 기타 개인유지	새참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 제외)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 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 관련 행동	
학 습	학생의 학교 학습 학생의 학교 외 학습 학습 관련 물품구입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 관리 청소 및 관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가족보살피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참여활동 자원봉사	
교제 및 여가활동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행동	컴퓨터 사용
이 동	개인유지 관련 이동 출·퇴근 / 기타 일 관련 이동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활동 관련 / 일반인 학습 관련 / 그 외 여가 활동 관련 이동 기타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농업 관련 이동
기 타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그 외 기타	

통계청 행동분류의 대분류 “일” 중 중분류 “고용된 일 및 자영업” 중 소분류 “주업”에 대해서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농업노동 행동분류를 기초로 각 작목별, 농사 행위별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정, 조정하면서 다시 세분하였다. 농업관련 행동의 분류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농촌의 주작목을 크게 미백, 시설원예, 과수, 축산으로 나누고 각각의 농사단계에 따라 농사작업별로 행동유형을 분류하였다. “재배, 사육 및 생산” “수확·선별·포장” “판매 및 경영활동” 농업노동행동의 범주화 작업은 농촌진흥청 연구사 및 가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문영역의 연구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수정과정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표 3>의 다섯 자리 숫자로 표시된 행동과 같다.

<표 3> 농업노동 행동 분류표

2 일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11 주업

[재배, 사육 및 생산]

21101 미백 파종 전단계

(종자예소 및 소독, 묘관준비 및 설치, 묘관관리 등)

21102 미백 파종 단계

(파종, 솟아내기, 김매기, 모 때우기, 모내기(이앙) 등)

21103 미백 파종 후 관리

(병충해방제, 물관리, 퇴비 및 기비, 추비살포 등)

21104 미백 기타 일

21105 원예 파종 전단계

(종자예소 및 소독, 묘관준비 및 설치, 묘관관리 등)

21106 원예 파종 및 재배관리

(파종, 정식, 순따기, 지주대 작업 등)

21107 원예 시설관리 및 병충해 방제작업

21108 원예 기타 일

21109 과수 전지, 전정, 묘목심기

21110 과수 재배 관리

(인공수분, 적과, 봉지씌우기 등)

21111 과수 시설관리 및 병충해 방제작업

21112 과수 기타 일

21113 축산 사료관리

(사료 재배 및 수확, 사료 준비 및 사료주기 등)

21114 사육단계의 관리(동물관리)

(영양주사, 예방주사, 발정 점검 및 유도 등)

- 21115 축사관리
(축사소독 및 청소, 차광막 설치 등)
- 21116 축산 기타 일

[수확·선별·포장]

- 21121 미맥 수확
- 21122 미맥 수확 후 판매전 단계
(선별작업, 포장, 저장 등)
- 21123 원예 수확
- 21124 원예 수확 후 판매전 단계
(선별작업, 포장, 저장 등)
- 21125 과수 수확
- 21126 과수 수확 후 판매전 단계
(선별작업, 포장, 저장 등)
- 21127 축산 수확
(착유, 도축, 달걀 수거 등)
- 21128 축산 수확 후 판매전 단계
(선별작업, 포장 등)

[판매 및 경영활동]

- 21131 미맥 운반 및 출하 판매
- 21132 원예 운반 및 출하 판매
- 21133 과수 운반 및 출하 판매
- 21134 축산 운반 및 출하 판매
- 21135 경영 활동
(농사 평가 및 계획, 농업관련 의사결정, 수입처분, 자금조달, 경영일지, 회계장부 기록)
- 21136 농기계관리

212 부업

- 21201 농축산물 가공판매
- 21202 농업 분야 임노동
- 21203 비농업 분야 임노동

213 일 중 휴식

214 일 관련 연수 (농업 관련 교육 및 사회참여)

- 21401 농업교육 참석

- 21402 작목반 참석
- 21403 농업단체 활동

215 집에 가져와서 일함

216 그 외 일 관련 행동

- 21601 일할 준비
- 21602 작업 마무리
- 21603 그 외 일 관련 행동

22

220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 제외)

23

230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24

24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5

250 구직활동

26

260 일 관련 물품구입

- 26000 농업 관련 물품구입

29

299 기타 일 관련행동

농업인 생활행동 분류체계는 통계청, 유럽 및 호주의 분류체계와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유럽에서는 여가와 관련된 활동들을 대분류에서 세분한 특징이 있다. 일본이 20개 항목으로 행동을 분류한 이외에 모든 국가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활동분류를 매우 세분한 특징을 보인다.

통계청의 행동분류를 외국과 비교할 때 개선점으로 제안된 몇 가지 사항은 앞으로 농업인 생활 시간조사를 위한 행동분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의 사회화 경향을 반영하여 소비자구매나 서비스 사용, 전화·이메일·우편 등을 세분하고, 컴퓨터나 핸드폰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용도가 다양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어떠한 매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구분하여 조사할

경우 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의 실태나 복지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돌보기 항목의 세분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2005년 농촌진흥청의 농업특정연구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농업인 생활시간조사는 농업인의 생활 시간 배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려는 조사목적에 부합된 조사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규모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행동을 세분화하여 범주화함으로써 향후 농촌 생활시간 조사를 표준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고안하였다.

농업인 생활시간조사에서 사용된 주요 조사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기간은 농업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전국적인 표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당 50가구씩 총 4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지역별로 주작목에 따라 미백 20가구, 시설원에 10가구, 축산 10가구, 과수 10가구의 비율로 대상 가구를 표집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은 조사대상 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다. 현역군인,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취업·취학으로 타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요양소·기도원 등에 수용된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표 배부일로부터 회수일까지 4일간 계속 부재중인 가구원, 심신장애(보고 듣는 것이 불가능한 자, 치매환자) 등의 사유로 시간일지 작성이 불가능한 사람은 조사대상 가구 내의 제외 가구원으로 하였다.

넷째, 10분 단위의 시간일지를 통하여 조사대상 가구원 전원의 2일간의 주행동에 대한 생활시간을 조사하였고, 가구원 중 성인 1인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질문지 조사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건강, 복지, 노동 및 여가, 가족관계, 보육·자녀교육, 안전, 시간제약, 가족원의 지위, 경제상황, 주거환경, 생활만족도에 관한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종이에 인쇄된 시간일지표 및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섯째, 시간일지표는 농번기 1048부, 농한기 999부를 자료처리하였고, 이 중 농번기 및 농한기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941사례를 패널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3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간일지표에서 생활행동분류는 사후코딩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곱째, 생활시간조사를 위한 행동분류는 전국민과의 비교를 위해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행동분류체계를 따르면서 농업노동행동은 미백, 시설원에, 과수, 축산 등 작목별특성이 반영되도록 더욱 세분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방법은 일반적인 생활시간 조사방법의 원칙을 준수하며 현실적인 자원의 한계 속에서 농촌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조사방법을 채용한 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추후 보다 향상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시기를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하여 2차에 걸쳐 생활시간을 조사함으로써 농업노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시간사용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농촌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인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국 8개 도의 8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로 주작목에 따라 대상 가구를 표집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다양한 주작목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조사대상을 표집하였으나 추후 조사에서는 농촌을 포괄하는 표본틀을 활용하면서 조사구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층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의 대표성과 함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2차 행동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생활시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차 행동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 사회변화의 경향을 반영하여 ‘구매’, ‘서비스 사용’ 등을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화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며, 컴퓨터나 휴대폰의 사용 역시 일반화되고 용도가 다양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어떠한 매체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구분하여 조사한다면 생활시간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환자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의 실태나 복지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돌보기 항목의 세분화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외숙·이기영·이연숙·조희금·이승미(2005).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여성가족부·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 결과 학술세미나.
- 최윤지(2004).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생활시간의 의미와 향후 과제.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업인의 노동 및 생활시간 조사자료 생산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통계청(2001).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 통계청(2005).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1998). Time Use Survey, Australia - Users' Guide, 1997.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cat/4150.0>
- BLS(2005). American time use survey-2004 results announced by BLS. <http://www.bls.gov/news.release/pdf/atus.pdf>.

BLS & U.S. Census Bureau(2005). American time use survey 2003-2004.

<http://www.bls.gov/tus/atussmcodebk04.pdf>.

Eurostat(2000). Guidelines on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s.

http://epp.eurostat.ec.eu.int/cache/ITY_OFFPUB/KS-CC-04-007/EN/KS-CC-04-007-EN.PDF

Eurostat(2005). Comparable time use statistics - National tables from 10 European countries.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CC-05-001/EN/KS-CC-05-001-EN.PDF

Japanese Statistics Bureau. Outline of the 2001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http://www.stat.go.jp/english/data/shakai/2001/gaiyo.htm>

농업인 생활시간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의 개선방안

김 성 희(순천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2005년에 실시된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의 조사방법에 대해 조사기간, 표본설계, 조사대상, 조사항목, 자료수집, 자료집계, 생활행동 분류의 7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밝히고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 조사방법, 미국과 호주 일본의 생활시간 조사방법과 비교하여 개선할 점을 모색하고 있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조사 시기를 연간조사로 해야 한다는 것, 둘째, 농촌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뿐 아니라 농촌인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 셋째, 조사구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층화표집을 해야 한다는 것, 넷째 2차 행동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구매, 서비스 사용 등을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통신매체의 사용, 가족돌보기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농촌 생활시간 조사가 일반적인 시간조사 방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촌 지역에 초점을 맞춘 조사방법으로 적절하였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농업인 생활시간조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었을 것인데 간과되었다고 보고 농촌 생활시간 조사를 표준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인 생활시간 조사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 및 표본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증가시킬 것이나, 법과정책은 농어민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조사방법은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농어민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보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04.6시행)에 따라 매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농림어업인, 농어업인이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및 지역에 임어민, 어촌이 포함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서지역은 내륙지역과는 달리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적은 특수성을 갖고 있고 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간 조사가 따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농업인의 생활시간 조사의 표본 설계 및 대상에 도서지역과 어민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농촌복지정책개발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거주인으로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부연하여 농어업인, 농어촌 거

주인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에 따르면 농산어촌을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복합산업 활성화의 4대 중점과제에 따라 총 133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인적자원에 중점을 둔 복지 실천과 더불어 지역복지의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므로 농림어업인과 농어촌거주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본다.

둘째, 농업인 생활행동 분류체계는 농업인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 가족, 사회 체계에서의 생활방식과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생활과 관련된 생활시간에서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부 및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시간인 대화시간,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시간이 조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생활행동 분류에 가족보살피기 영역이 대분류로 들어있는데, 농어촌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므로 가족보살피기 시간보다는 보살핌을 받는 시간에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유목화가 필요하다. 보살핌을 받는 시간도 앞으로는 가족 이외에 가정봉사과견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공공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시간이 많아질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항목명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더불어 복지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교제 및 여가활동 등에 포함된다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학습 대분류의 영역과 관련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어업 전문경영자 교육, 취업 훈련 등의 일반인 대상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평생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학습이라는 대분류 항목에 포함시킬 것인지, 교제 및 여가활동의 중분류로 들어 있는 일반인의 학습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